

한국과 대만의 제2외국어 교육 정책 비교 연구*

-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과정 변천을 중심으로 -

박 중 연**

<目次>

- | | |
|--------------------------------|---------------------------------|
| I. 서론 | III. 대만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의 변천 |
| II. 한국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의 변천 | IV. 결론 |

I. 서론

국가의 교육 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해 공적으로 제시하는 기본 방침으로,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과 대만의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은 단순히 학교 교육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의 발전과도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다. 제2외국어 교육의 근본 목적이 제2외국어 학습을 통해 그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외국과의 교류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 간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기에, 한 국가의 제2외국어 정책 제정은 언어 교육의 측면을 포함하여, 다양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모든 국가가 정치·경제적으로 마치 체인처럼 연결되어

* 이 논문은 2018년도 인제대학교 교원연구년제의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2018 0024).

** 인제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있어서, 자국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2외국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과 대만은 과거 근대사에서 모두 일본의 식민 통치를 거쳤고, 산업 구조 면에서 높은 인구밀도와 노동 집약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역사,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 또한, 최근 한국과 대만이 보여주고 있는 유사한 정치 외교적 활동을 보더라도 제2외국어 정책에서 상호 학습의 계기를 찾아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기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위주의 외교정책을 유지하면서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新南方政策’을 밝혔다.¹⁾ ‘新南方政策’이란 외교와 무역의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 印度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외교 분야 국정 운영의 5개년 계획으로, ‘新北方政策’과 짝을 이루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新南方政策’을 통해 한-아세안 교역량을 늘리고, 아울러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한편 대만의 경우는 한국보다 앞선 2016년 9월에 ‘新南向政策推動計劃’을 최종 승인하면서 아세안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했다. 蔡英文 정부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 국을 대상으로 무역·투자 확대를 통해 긴밀한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대만이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제2외국어 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제2외국어 정책 시행부서나 연구자들이 서로 참고하여 정책 제정 및 시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적인 교육 체계가 완성된 이후, 한국과 대만의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 정책 중에서, 특히 중국어에 대한 한국의 정책과 한

1)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공식 천명한 정책으로, 대만의 ‘新南向政策推動計劃’과 비교했을 때 내용 면에서 유사한 점을 갖고 있으며, 제2외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향후 영어 위주의 외국어 교육을 뛰어넘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다.

국어에 대한 대만의 정책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발전했기 때문에 상호 비교를 통한 연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해 문헌 자료의 분석뿐 아니라,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만 현지에 체류하면서 대만 교육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했으며, 연구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각 장에서 정책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령과 시기별 특징과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공교육의 근간이 되고, 교육부 정책을 가장 명료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 구분은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의 중요한 변화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존 양국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어에 관한 연구가 주로 영어를 대상으로 했고, 언어적 관점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양국의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을 비교 연구에 의의를 두었고, 제2외국어 교육 정책 실시에 따른 효과 분석이나 상세한 직접 비교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II. 한국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의 변천

본 장에서는 한국의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이 1945년 이후에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3장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대만의 제2외국어 교육 정책과 비교해서 양국의 제2외국어 교육 정책 특징과 향후 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이 각자 다른 행정 시스템과 교육 정책 목표를 갖고 있어서 절대적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공신력을 가지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교육의 시스템, 즉 교육부가 발표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을 통해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945

년부터 한국은 현대적인 개념의 제2외국어 교육을 했다. 시기마다 국내의 정치·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교육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주요 정책은 그 교육과정 속에 가장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²⁾

1. 美 軍政期 및 教授 要目期(1945~1954)

1945년 9월 17일 일반명령 제4호로 발표된 ‘新朝鮮의 朝鮮人을 위한 教育’에서 외국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내용은 9월 29일 군정법령 제6호로 수정되어 공포되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교육 정책 분야는 여전히 美 軍政에 의해 결정되었다. 외형적으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듯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해방 이전의 교육과 큰 차이가 없었다. 1946년 9월 20일 기준의 初級 中學校 교과 편제표 注를 보면, 외국어는 3년 수료 후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필수로 하며, 외국어는 영어로 한다고 했다. 또 高級 中學校 교과 편제표에는 필수과목 중 외국어는 영어로 하면, 선택과목 중 외국어는 중국어·불어·러시아어·독일어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實業을 선택하는 사람은 체육 보건을 3시간으로 줄일 수 있으며, 외국어를 필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이 시기는 외국어 학습보다는 체력과 實業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 같다.

미군 군정 상황에서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영어가 필수가 되었던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중국어는 해방 초기부터 중요한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해방 이후 교수 요목기부터 제2외국어가 교과로 채택된 것은 꽤 의미가 있으며,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서도 외국어 관련 학과가 설립되어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다.³⁾ 광복 이후 1948년 8월까지의 미군 군정기에는 4년제의 중학교와 고

2) 본 논문에서의 시대 구분 근거는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정한 기준을 따랐으며, 각 시기에 제2외국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변화나 본 주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중국어 교과과정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혀 둔다.

等女學校, 3년제의 사범학교, 6년제의 實業學校 등 중등학교에서는 영어를 필수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했다. 대학에서는 영어가 일반교양과목으로, 독어와 불어는 제2외국어로 지정되었다. 그러던 중 1950년 3월 <교육법> 개정으로 학제가 6·3·3·4 제로 확립되고, 1954년에 제정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실업학교 등 중등학교에서 영어가 필수과목이 되었고, 일부 고등학교는 독어나 불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쳤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영어를 교양필수과목의 하나로 정하고, 독어·불어·중국어는 제2외국어로 정했다.

교수 요목기는 시대적 요구가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고, 그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가 중시된 영어 위주의 외국어 교육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으로 분류되었던 국가의 언어가 제2외국어 정책을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사항이었다.

2. 제1차 교육 과정기(1954~1963)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근거로 했다. 이 시기 교육과정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최초로 교육과정 체제를 만들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교육과정 속에서 외국어에 대한 형식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1차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 교육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외국어 과목이 채택되었고, 학생에게 1~2개의 교과를 선택하도록 했다. 중학교 교과에서 외국어(영어)는 선택교과로 편성되었으며, 고등학교 교과

-
- 3)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경우, 서울대학교가 1946년부터 문리과대학에 영어영문학과·독어독문학과·불어불문학과·중국어문학과를 설치했으며, 사범대학에는 영문과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延禧大學校(현재의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동국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등도 영문학과 또는 영어영문학과를 만들었다.

에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가 외국어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이 시기 외국어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1950년대 이후에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다양한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이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1954년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개교하면서 영어·독어·불어·중국어 이외에 러시아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1955년에는 스페인어과, 1961년에는 일본어과, 1963년에는 이탈리아어과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가 개설되었다.

3. 제2차 교육 과정기(1963~1973)

보통 경험 중심 교육과정 또는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불리는 “제2차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제119호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시기는 국내외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고,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제1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2외국어 분야는 제1차 교육과정(1955)과 제2차 교육과정(1963)에서 ‘외국어 영역’에 포함됐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교육과정에서 독일어와 중국어가 교육과정에 편제되었는데, 2차 교육과정에서는 프랑스어가 추가됐다. 형식적으로는 제1·2차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 교과목이 학교별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제2외국어 교육이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은 처음에는 동일 과목군으로서 영어Ⅱ,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의 4개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이후 1969년에는 에스파냐어를 신설했고, 1973년에는 일본어가 추가되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에스파냐어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⁴⁾

국내 대학의 상황을 보면, 1965년에는 아랍어과, 1966년에는 포르투갈어과, 태국어과, 베트남어과, 1971년에는 인도어과가 개설되어 전문적인

4)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2009.

외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3년은 제3공화국이 수립된 시점으로, 국제 정치적 목적과 경제 부흥을 위한 기반으로 외국어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국제 정치에서는 1971년 대만이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물러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등장하면서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중국과 일본의 국교 회복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어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4. 제3차 교육 과정기(1973~1981)

1973년에 문교부령 제310호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유신헌법이 제정되었고, 이론적으로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의 외국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어가 고등학교 제2외국어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가 필수로 지정이 되어 기존에 제2외국어 대신 영어Ⅱ를 강의했던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했으며, 영어Ⅰ을 필수선택으로 편성했다. 제3차 교육과정(1973)에 들어 외국어 영역은 제1외국어인 ‘영어 영역’과 ‘제2외국어 영역’으로 분리됐으며, 3차 교육과정과 제4차 교육과정(1981) 시기 에스파냐어와 일본어 교과목이 추가로 개설됐다.

대학에서는 1974년에 스웨덴어과, 1975년에는 이란어과 등이 증설되어 다양한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쳤다. 일본과의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어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경제적으로 1976년 세계 19위 무역수출국이 되었고, 1978년에는 17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외국과의 무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제2외국어 교육이 강조되었다.

5. 제4차 교육 과정기(1981~1987)

1981년 문교부 고시 제442호에 근거하여 개정되었다. 1980년대 초의 정치, 사회적 특수한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한 새로운 교육적 전

환을 모색할 필요와 이에 대처할 적절한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되었다. 또 지나친 입시 경쟁에 따른 과도한 수업 부담을 줄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제2외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2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로 결정됨으로써 제2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가 교육 정책 수립에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외국어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따라서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외국어 교육의 특수 목적을 가진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중시되었던 영어, 독어, 불어가 중심이 되었고, 지형학적으로 중요한 언어였던 중국어, 일본어가 채택되었다.

6. 제5차 교육 과정기(1987~1992)

1988년 3월 21일 문교부 고시 제87-9호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이 시기는 정치적 영향력보다는 교육 내적인 필요에 의해 교과과정이 개편되었다. 1988년에 올림픽이 개최되는 등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고조되어, 교육에서 외국어에 관한 관심이 특히 높아졌다. 아울러 1990년대에는 조기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외국어 교육이 초등학교까지 확산하는 분위기였다. 1982년부터 특별활동에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던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1997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되었다.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과정이 문법 중심교육에서 의사소통 기능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으며, 글말 중심교육에서 글말과 함께 입말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학생들의 실용 영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원어민 교사가 초·중등 영어 교육 현장에 배치되었다. 대학에서도 영어권으로부터 원어민 교수

를 초빙하여 교양 영어에 회화과목을 대폭 확대했다.

이 시기는 외국어에 관한 관심이 영어에 집중되기는 했지만, 영어를 제외한 기타 제2외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불어·독어 중심에서 중국어·일본어 중심으로 빠르게 변했다. 그리고 제5차 교육과정(1987) 시기에는 러시아어 교과목이 추가됐으며, 각 교과목이 I 과 II로 나뉘었다.

7. 제6차 교육 과정기(1992~1997)

1992년 9월 문교부 고시 제1991-16호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이 시기는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다. 국제화에 대비하고자 외국어 과목을 전문교과로 신설되었고, 제2외국어 교과가 I 과 II 두 과목으로 되면서 각각 6단위씩 12단위로 편성되어 외형적으로 단위 수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영어 과목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실제 단위 수는 평균 8단위로 축소되었다.⁵⁾

8. 제7차 교육 과정기(1997~2007)

1997년에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이 시기는 정치적 영향력보다는 교육 내적인 필요에 의해 교과과정이 개편되었으며, 특히 교육과정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었다. 국내에 조기유학의 열풍으로, 초등학생이 영어권으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졌고, 세계화의 필요에 따라 영어 회화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주당 3~4학년 2시간, 5~6학년 3시간씩 영어 수업을 했다.⁶⁾

5) 이근남, <제2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외국어교육연구》 제4집, 2001, 90쪽.

6)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2004학년도 초·중등 교육 주요 업무계획》에 포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2외국어 교과가 영어와 함께 외국어 과목군에 포함되어, 고등학교 2·3학년 시기에 각 교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 교과가 기술·가정 등과 함께 생활 교양 교과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제7차 교육과정(1997)에 아랍어가 들어갔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1 교육과정에서 베트남어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또 언어별로 회화·독해·작문 등의 심화 과목이 개설되며 교과목이 늘어났으며, 2001학년도 대학시험부터 제2외국어 영역을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었다가, 2005학년도 시험부터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바뀌었고, 2015년에는 독일어·러시아어·베트남어·스페인어·아랍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와 한문 중 1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9. 2007 개정 교육과정(2007~2009)

2007년에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이 시기는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수시로 국가 교육과정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교육계와 학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했다. 교육과정 개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뀐 시점의 첫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영어의 비중이 늘어나 수업 시간이 증가했다. 2008년 수능 제2외국어 응시자 현황을 보면 일본어 I (35.1%), 중국어 I (15.7%), 아랍어 I (15.2%) 등의 순으로, 제2외국어에서 중국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함된 “제2외국어 교육 강화”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한 정책을 알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학년도 초·중등 교육 주요 업무계획》, 2003.)

10. 2009 개정 교육과정(2009~2015)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근거하여 교육 과정이 개정되었다. 이 시기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마련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의 현장 적용 방안이 강구되었다. 단위학교 차원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 및 학교 교육 정상화 도모- 학기당 이수 과목을 최대 5과목 줄이고 교과 집중 이수제를 도입했다.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가장 주요한 개정 내용은 전문교육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교과 이수 단위의 전공 외국어 이수 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리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의 외국어를 교육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2014년 수능 제2외국어 응시자를 보면 외형적으로 베트남어(37.98%), 아랍어 I(16.56%), 일본어 I(13%), 중국어(10%)의 순으로 나타나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와 비교할 때 중국어의 위상이 떨어진 것 같지만, 이는 수능에서 베트남어와 아랍어가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서 생긴 비정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11.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년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80호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이 시기는 교육부가 고시한 7차 교육과정의 개정 교육과정으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교육과정이 추구하던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제2외국어 교과의 특성을 기반으로 교과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을 도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대의 큰 흐름인 세계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융

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어의 경우 초중등학교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에서 ‘읽기’, ‘쓰기’ 학습을 강조하는 등, 언어발달 단계와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강화했다. 다른 제2외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원칙이 적용되었지만, 이전 교과과정과 비교하면 고등학교 생활 교양 영역 중에서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편성되어 다소 비중이 떨어지는 듯한 경향을 띤다. 고등학교 생활·교양 영역 중 일반선택 제2외국어 과목으로는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독일어 I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I, 중국어 II, 일본어 II, 러시아어 II, 아랍어 II, 베트남어 II 가 있다.

III. 대만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의 변천

대만의 제2외국어 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45년 이전에는 일본의 식민지 점령을 당해 일본식 교육 틀 속에 있었고, 1945년 이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새로운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초창기에 여전히 일본식 교육 정책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 대만 역시 제2외국어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분과 국제화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에, 세계 경제에서 대만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했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2외국어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대만의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의 핵심은 5년 단위로 추진된 〈推動高級中學第二外語教育五年計劃〉에 잘 반영되어 있으며, 그 정책이 시행되기 전후로 제2외국어 정책이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시기적으로 〈推動高級中學第二外語教育五年計劃〉 시행 이전과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지 5년 단위로 실시되었던 계획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推動高級中學第二外語教育五年計劃〉 이전의 제2외국어 정책

대만은 2018년 行政院長이 중국어와 함께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겠다는 “영어 공용화” 정책을 발표할 만큼 영어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과거 “國語推行運動時期”에는 영어가 선택과목이었지만, 1968년 국민 의무교육이 실시되자 중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그 후 지구촌 추세에 부응하고 넓은 세계관을 가진 학생을 배양하기 위해 대만 교육부가 1983년부터 정식으로 고등학교 과정(〈高級中學課程標準〉)⁷⁾에 제2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했고, 1994년부터 고등학교에 실험적으로 제2외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했다.

대만 교육부는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 과정 개설을 독려하기 위해 1996년부터 3년 기한의 〈推動高級中學選修第二外語課程實驗計劃〉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제2외국어 과정을 이수하도록 제공했다. 하지만 공교육에서 외국어 교육은 영어를 위주로 이루어졌고, 기타 제2외국어는 사교육 영역인 사설 외국어 학원에서 학습했다. 1998년 9월 공포된 〈國民教育階段9年—貫課程總綱綱要〉에서는 9년제 전체 계획의 관점에서 국민교육단계의 학교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초등 및 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언어(국어, 모국어, 외국어 포함), 수학, 건강 스포츠, 자연과학, 사회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제2외국어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큰 편이 아니었다.

2. 〈高級中學第二外語教育5年計劃〉(1999~2004)

이 계획은 教育部 臺(88)高(三)字 第88079527號 서신과 〈高級中學法〉,

7) 여기서 말하는 “高級中學”은 우리나라의 일반 고등학교와 직업고등학교를 가리킨다.

〈高級中學課程標準〉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1996년에 수립된 〈教育部推動高級中學選修第二外語課程實驗計劃〉의 성과를 계승했으며, 제2외국어 학습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제도화하는 기초를 세워, 제2외국어를 고등학교 핵심 과정으로 넣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각급 고등학교의 참여를 독려하여, 고등학생들이 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기타 제2외국어 과정을 선택하도록 지원했으며, 제2외국어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 관련 학과 및 대만 주재 외국 문화 기관과 협조하여, 제2외국어 학습 환경을 만들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제2외국어 개설 반수와 수강생은 대폭 증가세를 보였다. 1999년 시행 초기 1학기 제2외국어 개설 반이 모두 325개(일본어 47개 교, 236개 반, 8,646명; 프랑스어 24개 교, 54개 반, 1,739명; 독일어 16개 교, 28개 반, 907명; 스페인어 6개 교, 7개 반, 208명)로, 제2외국어 중에서도 일본어 개설 반이 압도적 수를 차지했다.⁸⁾ 2학기의 수강생은 총 11,123명이었고, 이 계획의 집행 마지막 해인 2004년 첫 번째 학기에는 571개 반, 수강생 18,884명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제2외국어 개설 반이 43%, 수강생이 39%로 증가했다.⁹⁾

비록 국제사회에서 대만과의 수교 국가가 1999년 29개에서, 2004년에 26개로 줄어들고, 중국의 압력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만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었지만, 국내적으로는 국제화 추세의 흐름에 따라서 제2외국어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 시기 주목할 만한 것은 2004년 2학기에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 과목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1992년 한국과의 단교 이후, 민간 경제 분야에서는 여전히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는 했지만, 한국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한

8) 대만에서 제2외국어 중 일본어 선택 비율이 높은 것은 역사적으로 대만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중국 본토에 대한 반발 심리와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제2외국어 선택에 있어 일본어의 채택 비율이 가장 높다.

9) 教育部國民及學前教育署, 〈推動高級中學第二外語教育第4期5年計劃〉, 2015, 8-9頁.

국어가 추가되었다는 점은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긍정적 신호였다.

3. 〈高級中學第二外語教育第二期5年計劃〉(2005~2009)

이 계획은 〈高級中學法〉과 〈普通高級中學課程綱要〉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환경을 정비하고, 도농 간의 격차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학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2외국어 교육의 질과 양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普通高級中學選修科目《第二外國語》課程綱要〉를 제정했으며, 〈高級中學學生預修大學第二外語課程計劃〉을 세우고, 〈고등학생 제2외국어 능력 시험〉을 실시했으며, 〈제2외국어 학과 센터사이트〉를 만들었다. 또 교사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高中第二外語科教師研習計劃〉을 마련했으며, 〈高中第二外語座談會〉의 개최와 〈제2외국어 캠프〉를 열어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 결과 고등학생 중에서 제2외국어 수강생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3월, 정식으로 〈推動高級中學第二外語教育第二期5年計劃〉을 실시하여, 대만의 제2외국어 교육 환경과 학습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2005년부터는 국립고등학교 이외에도, 많은 縣市, 예를 들면 타이베이시, 가오슝시 등 17縣市 부속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그 반응이 매우 좋아서, 2005년 1학기 제2기 5년 계획이 시작되었을 때, 고등학교 제2외국어 개설 학교가 139개, 731반이었으나, 2006학년 제1학기에는 159개 학교, 795반에 모두 26,289명의 학생이 수강했다. 개설된 제2외국어는 2005년 1학기에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가 있고, 2학기부터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라틴어, 러시아어 등으로 늘어났다.

이 당시 타이베이 시립 景美女子高級中學과 타이베이 시립 明倫高級中學에서 처음으로 “한국어1”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었다. 2005년에 39명이 이수하여 수강생 수는 많지 않았지만, 2005년부터 한국과 대만의 직항이 개설되고, 동방신기의 성장과 슈퍼주니어 등 제2세대 아이돌의 등

장으로 인한 한류의 영향이 확대되어, 한국어 학습 열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4. 〈高級中學第二外語教育第3期5年計劃〉(2010~2014)

이 계획은 〈高級中學法〉과 教育部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四年教育施政主軸〉, 〈普通高級中學課程綱要〉, 〈增進高級中等學校學生國際經驗及視野方案〉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제2기 5년계획(2005~2009)에 이어서, 〈제2외국어 학과 센터사이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高中生預修大學第二外語學分專班〉을 확대했으며, 제2외국어 능력 시험을 추진했다. 〈第二外語特色課程模式〉을 만들어 확대했으며, 고등학교 제2외국어와 대학 입시를 연계했다. 통용되는 교재의 분석과 교학 진도 목록을 완성했으며, 동남아 언어 과정을 홍보하고 지도했다. 또 대만에 주재하는 외국의 제2외국어 관련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 활동을 확대했으며, 고등학교 제2외국어를 채택하는 학교와 학급 및 인원수, 언어의 종류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第二外語課程結合國際教育〉 교학 내용과 교학 사례를 연구하여 공포했으며, 성공적으로 제2외국어 교육과 국제교육 정책을 서로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다.

2010년 1학기과 2학기에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라틴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가 개설되었으며, 2011년 1학기부터는 이탈리아어, 2012년 2학기에는 태국어가 추가되었다. 2013년 1학기에는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라틴어, 베트남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포르투갈어가 추가되었으며, 2학기에는 다시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가 되었다. 2014년에 1학기에는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라틴어, 베트남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필리핀어가 개설되었다.

이 시기 제2외국어 개설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사회·경제 분야의 변화를 제2외국어 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대만은 2000년 이후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외국 인력 고용 수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부족한 노동자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이 불가피했다. 2005년 말 국적별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 분포를 보면 전체 327,396명 중에서 태국(98,322), 필리핀(95,703), 베트남(84,185), 인도네시아(49,094), 몽고(79), 말레이시아(13) 등의 순으로,¹⁰⁾ 국가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수입과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동남아 국가의 언어가 외국어 개설에 반영되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2011년 상호 왕래 인원이 70만 명에 근접해, 2010년에 비해 7%가 증가했고, 경제적으로는 양국 무역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서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1992년 대륙과의 수교로 인해 외교적으로 단교하고, 국민 정서적으로 혐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2014년 제1학기 제3기 5년 계획이 마칠 때 제2외국어가 개설된 229개 학교, 1,753반 중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학생은 6,300명이나 되었다.

5. 〈高級中學第二外語教育第4期5年計劃〉(2015~2019)

이 계획은 〈高級中學法〉, 〈普通高級中學課程綱要〉, 〈增進高級中等學校學生國際經驗及視野方案〉, 〈提升青年學生全球移動力計劃〉에 근거하여 시행했다. 대만 정부는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多言語 能力과 국제화된 행동 능력을 요구하고자,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것을 독려했다. 제2외국어를 확대할 수 있는 機制를 갖추고, 〈國際移動力·國際行動能力〉을 목표로 하는 제2외국어 학습 환경을 개선하여, 교사를 선발했다.

2015년에 개설된 제2외국어는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

10) 臺灣 行政院 勞工委員會 職業訓練局(2006) 자료에서 인용함.

국어, 라틴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모두 14개로 늘었고, 개설 학교도 도시를 넘어 농촌으로 확대되었다. 초·중·고등학교의 국제교육을 추진하고 실현하고, 깊이 있고 폭넓은 학교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대만 교육부는 2016년 10월 28일 〈教育部國民及學前教育署補助高級中等以下學校推動國際教育要點〉을 수정 공포하여, 전국 高級中等 이하 학교가 〈커리큘럼 발전과 교학〉, 〈국제 교류〉, 〈교사 전공 발전과 학교 국제화〉 등 4개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초중고의 국제화 교육 계획을 시행했다.

2005년 대만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된 이래로 한국어 수강생이 100배 이상 급증하여, 2015년 1학기 기준으로 68개 고등학교에, 149개의 수업이 개설되었고, 수강생은 4,259명이나 되었다. 다른 제2외국어와 비교하면 일본어(54.6%), 프랑스어(13%), 독일어(11%), 스페인어(10.7%)의 다음으로 8%를 차지했다. 2017년 1, 2학기에는 전국에 모두 3,042개 반이 개설되어, 91,450명의 학생이 이수하여, 고등학생들의 제2외국어 이수 학생 수가 대폭 늘었다. 2017년은 한국을 방문한 대만인의 숫자가 92만 명, 대만을 방문한 한국인은 105만 명에 달해 한국어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4년에 고등학교 제2외국어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이 6,300명에서 2018년에는 1만2,000명으로 증가했고,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학교도 241곳에서 403곳으로 증가했다.

이 시기 가장 큰 특징은 2017년 대만 정부는 “新南向政策”에 따라 교육부가 2019년부터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미얀마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7개 언어를 대만 공립 교과과정에 포함해 이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모국어로 가르쳐 “新南向政策”을 추진하는 선봉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점이다.¹¹⁾ 대만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현재 동남아 국가의

11) 2015년 말 현재 대만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70만 명으로, 그중 인도네시아인이 22만 명, 베트남 16만 5천 명, 필리핀인 12만 5천 명, 태국인 6만 5천 명을 차지했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 이민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그들 언어에 대한 공교육에서의 개설과 추진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IV. 결론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과 대만의 교육 당국이 제정한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과정 정책을 통해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에서 한국과 대만의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첫째, 한국과 대만은 모두 1945년에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났지만, 초창기에는 모두 일본식 교육시스템을 유지했으며, 그 후 제2외국어 교육은 서로 비슷한 듯 다른 길을 걸었다.

둘째,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은 정치,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대만은 모두 정치나 경제에 따라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이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경제적인 부분이, 대만은 정치적인 부분이 제2외국어 정책에 다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대만의 경우 총통의 성향에 따라 제2외국어 교육 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는 한국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고립된 상황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국가적 필요에 따라 제2외국어 정책이 변화함을 보여준다.

셋째, 한국과 대만은 모두 영어 偏愛 현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평화 유지와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6개 언어(영어, 중국어,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어, 아랍어)를 공식어(혹은 공용어)로 지정했다. 한국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공용어가 없었지만, 2004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국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었고, 2016년에는 한국 수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었다. 대만

의 경우 중국어가 공용어이지만 2018년 영어와 중국어를 이중 언어로 삼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한국에서도 1998년에 영어 공용화 논쟁이 제기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아직도 그 논의는 진행형이다. 국제사회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한국이나 대만은 모두 지나친 영어 편애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제2외국어에 대한 교육과 진정한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어를 위주로 가르치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설립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외국어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어 위주의 집중 현상과 비정상적인 입시 위주의 운영에 따라 현재에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폐지의 위기에 놓여 있다.

넷째, 다양한 제2외국어 종류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부족하다. 한국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2외국어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가 지정되어 있고, 일부 과목의 경우 대학 입시 시험인 수능능력시험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대만은 이미 2015년에는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라틴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모두 14개 언어로 확대 교육하고 있다. 이는 제2외국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러한 언어를 수강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다섯째, 정부 주도의 제2외국어 교육 정책 제정 및 집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과 대만 모두 교육 주관 부서에서 외국어 교육 정책을 계획하고 재정 투입을 책임진다. 물론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부 연구기관이나 정책과제의 형태로 대학에 맡기지만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실제로 얼마나 연계되고, 사회·정치·경제 등 분야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국과 대만은 1945년 이후 이미 대학에 언어별 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과 중고등학교가 함께 제2외국어 정책을立案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교육에서의 제2외국어 제도 개선 필요

한국과 대만은 모두 교육열이 강하며, 치열한 입시 경쟁체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교육에서 제2외국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어 위주의 외국어 선택은 제2외국어에 대한 선택의 폭을 더욱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모국어+2”의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제2외국어 대책의 필요

한국과 대만은 과거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서 인구 감소가 심각한 국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이나 농촌 노총각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남아 국가의 결혼이민자와 노동자들이 들어왔고, 점차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¹²⁾ 그러나 이처럼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셋째, 체계적인 제2외국어 교육 정책 연구, 결정, 제정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

외국어 교육 정책은 국가 교육 정책의 주요한 구성 부분으로, 국가 정치, 경제, 사회발전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도 연관이 있다. 외국어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외국어 교육 정책 제정과 집행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요소를 여러모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2) “2019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문화 학생 수는 2018년에 비해 12.3%(1만 5,013명) 증가하는 추세이다.

넷째, 한국과 대만의 공동 연구를 통한 제2외국어 교육의 상호 보완 체계 마련의 필요

한국과 대만은 제2외국어 교육 정책 연구 분야에 있어서 관련 기관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실질적 문화 교류 협력 프로그램 운영하고,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지금까지 교육의 힘으로써 오늘의 굳건한 자리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생존할 수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제2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서로 공동의 협력과 연구를 통해 좀 더 나은 제2외국어 교육 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상호 발전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믿으며, 향후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2009.
- 교육인적자원부, 《2004학년도 초·중등 교육 주요 업무계획》, 2003.
- 이근님, 〈제2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외국어 교육 연구》 제4집, 2001.12.
- 陳慶智, 〈대만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발전 연구〉, 《한국언어문화》 64권 0호, 2017.
- 教育部國民及學前教育署, 〈推動高級中學第二外語教育第4期5年計劃〉, 2015.1.
- 教育部中等教育司, 〈推動高級中學第二外語教育五年計劃〉, 1999.
- 教育部中等教育司, 〈推動高級中學第二外語教育第2期5年計劃〉, 2005.

- 教育部中等教育司, 〈推動高級中學第二外語教育第3期5年計劃〉, 2010.
- 教育主管部部門, 〈普通高級中學選修科目第二外語課程綱要〉, 2008.
- 臺灣教育部, 〈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國民中學暨普通型高級中等學校〉, 2018.
- 立法院, 〈立法院議案關係文書(院總第887號 政府提案第15350號之1149)〉, 2016.5.
- 王清棟,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전망〉, 《한국어 교육》 26권 4호, 2015.
- 楊武助, 〈臺灣高中第二外語教育現狀與發展方向〉, 《當代青年研究》 第3期, 2014.
- 張平, 〈海峽兩岸基礎教育階段外語教育政策比較〉, 《武陵學刊》, 2017.
- <http://ncic.go.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 <https://www.roc-taiwan.org/kr/post/160.html>(駐韓國臺北代表部經濟組)

<Abstract>

‘Language’ is an important tool of communication and thoughts for human being. And the people’s ability of foreign languages of a country represents its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ould be a criteria of a way of thinking. Therefore,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in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In addition, using and speaking foreign languages could help all of us to exchange and share the thoughts and culture with others in foreign countries.

When a country establishes a polic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various kinds of factors beyond the basic

aspects of language education. Also, foreign language education could represents cultivating intellectual capacity of the people, and furthermore, it has very much related to future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 the fields of society, politics and economy.

Since geographically, the two countries, Taiwan and Korea are very close each other, economic performances between the countries have been very act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establish the seco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policy and prepare for improvement plans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high school second language education policies of Taiwan and Korea.

Key Words : 한국(Korea), 대만(Taiwan), 제2외국어(second foreign language), 제2외국어 교육 정책(Seco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Policy)